

심장노이로제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심장에 통증이 오는 증세 이것은 흔히 눈에 띄이는 심장병 노이로제다.

구미 각국에서는 심장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사람중 25%는 진찰해 보면 신체적으로 완벽할만큼 건강체라고 한다. 이런 환자는 일종의 정신질환 즉 심장노이로제에 걸린 사람이다.

【문 1】 심장노이로제란 어떤 증세인가?

(답) 심장이 건강한데도 당사자는 무언가 심장이 당기는듯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이다.

【문 2】 이런 환자가 많은지?

(답) 전 세계 인구의 2%~5%(7천~1천7백만명)는 심장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3】 실제로 심장에 통증이 있는가?

(답) 그렇다.

【문 4】 건강한 심장을 갖추고 있는데

통증이 오는 이유는?

(답) 심장노이로제 환자는 흉곽호흡을 할 경우가 많아 횡경막이 약간 움직인다. 그러나 매우 세게 흉곽호흡을 하게 되면 늑골근육에 심한 압박이 가해져 아픔을 느끼게 된다.

【문 5】 통증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답) 93%의 환자는 심장이 답답하다든가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에 곤란을 느낀다. 이때 혹 심장병이 아닌가 걱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심장의 통증 이외에도 심장부근의 기관에 아픔을 느낀다든가 피로감을 느낀다.

【문 6】 이와 같은 증세는 진짜 심장병과 똑같은 증세인데 의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진위를 가려내는지?

(답) 전자 심전도(心電圖)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심전도에 의하면 심장노이로제환자는 완전한 건강체로 나타난다.

【문 7】 심장노이로제에도 중증이 있는가?

(답) 그렇다 특히 흥분하거나 불안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에 많다.

【문 8】 심장 노이로제를 일으키도록 영향을 주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답) 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심한 정신적인 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적인 사건이란 이를테면 다른 사람이 심장 마비를 일으켰다는 따위의 이야기다. 이럴때 얼핏 자기자신도 똑같은 증세가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심장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카다르 증세가 있다던가, 커피를 마신 뒤 맥박이 너무 빨라진다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문 9】 심리적인 원인은 어떤 것인가?

(답) 우선 좌절감을 느끼거나 논쟁 등이 원인이 된다. 소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가 깨어지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장노이로제에 걸리게 된다.

【문 10】 심장노이로제 환자가 처음

통증을 느끼고 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답) 심장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스스로 살펴보며 맥을 짚어 본다든가 가슴에 손을 대본다든가 한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조심해야겠다. 너무파로 하면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겠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 잡힌다.

【문 11】 심장노이로제 치료방법은?

(답)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 환자는 자신의 심장에 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이런 의심을 씻어주려 해도 믿지를 않고 매달기 까지 한다. 어떤 환자는 다른 의사를 찾기도 한다. 이럴 경우 환자에게 그러한 증세는 전혀 무해 하다고 일깨워 주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이는 환자가 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의사는 환자가 이야기 하는 고충을 귀담아 들을 성의가 있어야 한다.

【문 12】 심장노이로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지?

(답) 그렇지 않다. 심장노이로제는 절대로 생명과 관계 없다고 확인할 수 있다.